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6월 9일 수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국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마성간	☎	286-6330

전남도, 저비용 친환경 참쑥 재배로 억대 소득 농가 화제

- 함평군 호암쑥농장 김희석 대표, 평당 7~8만 원 소득 올려 -

함평군 학교면 호암마을에서 참쑥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가가 억대 소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 호암쑥농장 김희석 대표는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참쑥을 채종하여 겨울철 비가림하우스에 파종 친환경 농법으로 평당 7~8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에서 함평으로 귀농해 방앗간을 시작한 김대표는 주재료로 사용하는 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농약으로 참쑥 재배를 시작했다.

참쑥은 재배가 쉽고 다년생 작물로 연중 7번의 수확이 가능하며, 진딧물 등 병해충도 강해 관리가 수월하고 겨울철 난방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

김 대표가 재배한 비가림하우스 참쑥은 노지보다 부드럽고 상품성이 좋아 현재 200g당 2,40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한살림, 생협, 마켓컬리, 초록마을, 떡집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등 다양한 판매처로 유통하고 있다.

비가림하우스 7동 1,300평에서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 대표는 “올해 무농약 재배를 유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면서, “영광 모싯잎 송편처럼 함평군에 참쑥 떡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부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살균, 진통, 소염, 해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참쑥처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고소득 품목을 발굴하여 친환경농업을 펼치겠다”면서, “앞으로 유럽처럼 유기농을 원료로 하는 식품, 신약, 헬스케어 소재산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사진 있음